

지방자치·국제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채용 비리 의혹 확산

박철홍 도의원 “다 급 면접도 포기한 지원자 다음달 나 급 합격” 주장

민주당 “부정 취업 엄격 조사” 요구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현직 도의원의 딸이 가짜 경력증명을 이용해 입사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또 다른 인력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정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철홍(당양 1·민주당) 전남도의회 의원은 22일 전남도청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남 문화산업진흥원 사태와 관련한 해명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내가 자살한 김기훈 전 원장에게 인사 청탁한 사람 중 하나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자신의 인사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진흥원 인사채용의 잘못된 사례를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글에서 작년 9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의했던 녹취록을 함께 공개, 진흥원 인력채용 과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진흥원은 지난해 9월 콘텐츠사업팀 다급 직원 1명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에 응시한 5명을 모두 탈락시켜 놓고도 정작 당시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를 다음달 다급 공개 모집한 상위 직급인 다급 채용 시험에 합격시키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뒤 “채용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직원이 사표를 낸 뒤 하루 만에 기다렸다는 듯 다급 채용 시험 공고를 내는가 하면, 정규직 전환 여부 등으로 2주 전 다급 면접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지원자가 나급 시험에 응시, 합격한 게 우연치고는 지나치지 않느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또 “다급 직원 공모할 때 응시자에게 요구했던 하라고 했던 직무수행 계획서는 채용 시에는 받지 않았다”면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진행된 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흥원의 이 같은 불공정한 인사채용 사례가 있어 작년 9월 이 문제점을 거론하고 지적했는데 이것이 내가 진흥원에 압력을 넣은 것처럼 돼 버려 해명할 필요가 있다”

면서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 주장에 등장하는 직원은 작년 9월 진흥원 다급(석사학위, 학사학위와 2년 경력)공모에 지원, 서류전형에 합격했으나 면접에 응시하지 않고 한 달 뒤 공교된 나급(박사학

위, 석사학위와 2년 경력, 학사학위와 4년경력)공모에 합격해 현재 근무중이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2일 이낙연 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 의를 열어 당 소속 도의원 자녀가 전

남문화산업진흥원에 부정 취업의 것과 관련, “전남도와 감사원의 엄격한 조사와 응분의 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서 외국인근로자 배구대회 ‘2011 전국 외국인근로자 배구대회’가 24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광주 하남·평동산단, 대구, 창원, 인천 등에서 대표로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대 선수들의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노르웨이 정부청사·캠핑장서 연쇄테러 수도 오슬로의 정부 청사가 자리잡고 있는 도심에서 22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간) 폭탄 테러 발생으로 최소한 7명 사망 9명 부상

노르웨이 연쇄테러 92명 사망

집권당 청소년 캠프 85명·총리실 7명

30대 용의자 체포

유럽에서 가장 평화적인 나라로 여겨지는 노르웨이에서 22일 집권 노동당 청소년캠프 행사장과 총리 집무실을 노린 연쇄 테러가 발생해 최소 92명이 사망했다.

22일 오후 수도 오슬로에서 30여km 떨어진 우토야섬에서 발생한 집권 노동당 청소년 캠프 행사장 테러로 최소 85명이 숨졌고 그 몇시간 전 오슬로에 있는 총리 집무실 부근에서 폭탄이 터져 7명이 숨졌다. 경찰은 두 테러사건이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르웨이 경찰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우토야섬 청소년 캠프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의 사망자가 앞서 발표된 80명에서 85명으로 늘었

다고 밝혔다. 외스테인 벨란드 경찰청장은 “사고 현장을 수색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규모가 “대재앙”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르웨이 경찰은 오슬로 정부청사 부근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의 사망자는 최소 7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토야섬 캠프장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이 용의자가 두 사건 모두에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지 공영방송 NRK는 체포된 남성은 노르웨이 태생 32세의 ‘안드라스 베링 브레이비크’로 경찰이 전날 밤 오슬로에 있는 그의 집을 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6자회담 하루 빨리 재개하자”

남북 비핵화회담서 합의 ... 3년만에 외교장관 접촉도

남과 북이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비핵화 회담을 열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한데 이어 23일 외교장관 간 비공식 접촉을 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총장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승 북한 외무성 부상은 22일 인도네시아 발리 웨스틴 호텔에서 만나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방안을 놓고 두 시간 동안 회담했

다.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北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이후 2년7개월만이다.

리 부상은 회담 직후 내·외신 기자들을 만나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을 확고히 이행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전 조산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응의들이 표명했

다”고 설명했다. 위 본부장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은 생산적이고 유익한 대화였다”면서 “비핵화 협상 과정을 재개하기 위해 남북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과정을 지속해 6자회담의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그러나 이번 회동에서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거나 차기 회담을 개최할지 여부는 합의하지 못했다

고 설명했다. 남북한 간 비핵화 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방안이 강한 탄력을 받으며 교착국면에 놓인 6자회담 재개 흐름에 돌고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 김정은 북한 외무성 부 장관과 박희춘 북한 외무상은 23일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회의장(BICC)에서 조성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북 외교장관이 접촉한 것은 2008년 7월 싱가포르 ARF 외교장관회의 이후 3년 만이다.

김성환 외교교통부장관은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비핵화 회담은 남북이 주도해야 한다”며 “반의준 북한 외무상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박 외무상도 상당한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제 열린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비핵화 회담은 이런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남과 북은 후속 대화의 방향과 수순을 놓고 관련국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다. 북한의 핵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28일 미국 뉴욕을 방문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특히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날 것으로 알려져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북미대화가 공식 재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김석원 청와대비서관 광양 방문 국민 소통

“경복궁 담장이 낮아 명성황후 시해 당해”

청와대 김석원 국민소통비서관이 22일 광양을 방문, 어려운 이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청와대 행정관과 총리실 관계자 등 3명과 함께 광양을 찾은 김 비서관은 이날 광양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들러 현황살명을 들은 뒤 장애인과 복지관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이어 중매재래시장과 광양다문화가족 가족지원센터, 사회적기업인 ㈜포스플레이트 등을 차례로 찾아 시장 상인, 관계자 등과 면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뒤 첫 외부 강연에서 경복궁 담장이 낮아 명성황후가 시해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 유 문화특보는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소방학교에서 강남소방서 직원 45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강연을 한 중 “경복궁 담장 보세요, 얼마나 안전이냐”고 “사람들 흘랑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비(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한 거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JTB travel agency,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stinations like China, Europe, and Japan. It includes prices, departure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